

## 20대 초반의 남성을 위한 다양한 팬츠 패턴 제안 및 착용평가

정 연 희<sup>†</sup>

군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atterns for Pants for Men in their Early 20s  
and Evaluation of Subjective Wear SensationYeonhee Jeong<sup>†</sup>

Dept. of Clothing &amp; Textil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0년 10월 19일), 수정일(2011년 1월 4일), 게재확정일(2011년 1월 8일)

## Abstract

This investigates the type of pants preferred by Korean men in their 20s through a subjective wear test. Six types of men's pants were developed as experimental garments. The male subjects were university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20 and 24. Subjective wear sensations of the experimental pants were rated using seven Likert scales. A 7-point Likert-type scale was used for the evaluation, with 7 indicating the best fit. As a result, a basic men's sloper for lower body clothing was developed based on *SizeKorea 2004* anthropometric measurements surveyed between 2003 and 2004. A basic pattern (A) was manipulated to tight-fit pants (E) and loose-fit pants (D, L, M, and N) by considering the ease at hip level and the style. Among the six pants, pants D and L (4cm ease at hip level) were found to be superior to others in terms of comfort, fitting, and crotch depth. With regard to ease and comfort of the crotch part, pants E and A (0cm ease at hip level) were found to be the least preferred.

**Key words:** Men's pants, Anthropometric measurements, SizeKorea 2004, Subjective wear test; 남성 팬츠, 국민표준채워조사, 사이즈코리아 2004, 주관적 착용평가

## I. 서 론

최근 새로운 소비주체 및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20~30대 남성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 되어 있는 남성복 틀을 깨고 다양한 의복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십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남성 팬츠는 여성 팬츠의 스타일과 장식기법, 소재특성을 모방하여 형태적, 소재적 변화가 매우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신만의 개성과 패션화를 추구하며 풍부한 감성과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흐름을 부각시키는 남성 트렌드와 무관치 않다. 남성 트렌드는 유니섹스(unisex),

앤드로지너스(androgyne), 젠더리스(genderless)의 확산과 함께 남성복의 여성화를 촉진시켰으며, 남성의 가치관과 문화적 특징을 반영시키고 있다. 남성 패션 경향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현지, 박옥련(2003)은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연구에서 남성복 형태가 전체적으로 피터드 실루엣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에 따른 슬림 실루엣의 추구 현상과 관련있다 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이연영 외, 2006)에서는 남성 패션의 메트로섹슈얼 현상이 남성의 여성화 현상인 위버섹슈얼(uber sexual), 크로스섹슈얼(cross sexual), 루키즘(lookism) 현상과 연결되어 미래의 남성복 변화를 급속히 이끌것이라 예측하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jlucia@kunsan.ac.kr

였다. 그러나 최근 남성 패션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조응하여 남성 트렌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트렌드를 반영한 남성 패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의 남성복 패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 전공 남자 대학생의 하반신 체형에 적합한 슬랙스 연구(김선희, 이현민, 2005)에서는 스포츠 전공자의 경우 신체특성이 일반인들과 다름을 지적하였다. 즉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넓다리둘레 등의 치수항목에서 일반인보다 현저히 치수가 커, 이를 반영한 팬츠 패턴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스포츠 전공자를 위한 팬츠 패턴을 제안하였다. 김영희(2008)는 하지 동작에 적합한 남성복 슬랙스의 밑위길이 여유분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밑위길이 여유분을 0cm, 3cm, 6cm로 달리하고 팬츠의 동작기능성을 측정 한 결과 밑위길이 여유분이 3cm인 경우 움직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였으며, 밑위길이 0cm, 6cm인 경우는 하지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밑위길이 여유분의 편차가 비교적 크게 설정하여 실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엔 제한적이라 하였다. 남성 정장 바지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백경자, 이정란, 2001)에서는 남성복 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을 위한 맞춤새가 좋은 주름 2개의 기본 정장 바지원형 제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25세에서 34세의 남성이었으며, 실제 연구가 2000년에 이루어져 패션트렌드로 볼 때 현재의 20대 초반의 취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5차 한국인체치수조사사업(산업자원부, 2005)에서 제안된 신체치수를 이용하여 신축성 원단을 이용한 남성용 밀착 팬츠 패턴 연구(정연희, 2006)에서는 기본 팬츠를 제안하였으나 그 연구의 중점이 신축성 원단을 이용한 밀착 팬츠 개발에 있어 20대 남성을 위한 다양한 팬츠 패턴 제안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남성 팬츠 패턴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정장 팬츠를 위한 패턴 설계(남윤자, 이형숙, 2005; 백경자, 이정란, 2001; 석은영, 김혜경, 1996)가 대부분으로 최근의 스타일을 수용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여유가 없는 기본 밀착 팬츠에서 여유가 있는 팬츠, 턱이 있는 팬츠와 턱이 없는 팬츠 등 다양한 팬츠 패턴에 대한 20대 초반의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폴리의 길이 분할 방법과 제도법을

이용하여 6종류의 팬츠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이를 제작하여 착용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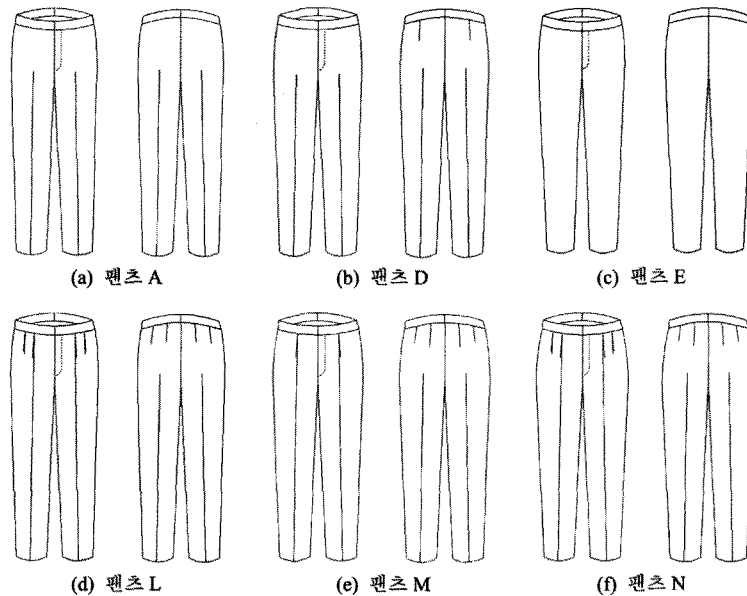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SizeKorea 2004의 20대 초반 신체치수를 이용하여 여유가 없는 기본 밀착 팬츠에서 여유가 있는 1턱 팬츠, 2턱 팬츠, 스키니 팬츠, 기본에 여유를 추가한 팬츠 패턴을 제안하고, 이를 길이, 면적 등의 항목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제작된 팬츠를 전문가용 드레스폼에 착장하여 여유분 및 패턴 변화에 따른 팬츠의 형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유가 없는 기본 팬츠에서부터 여유분 추가 및 턱 추가를 통한 팬츠 즉, 6가지의 형태 변화를 갖는 팬츠를 제작하여 20대 초반의 남성 피험자에게 착의평가하여 착용패적감 및 엉덩이둘레부위, 허벅지부위 등의 여유분 적절성 및 외관을 평가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6가지 팬츠의 도식화 및 SizeKorea 2004의 20대 초반의 남성 데이터를 이용한 기본 팬츠 패턴 제도

<그림 1>은 6가지 팬츠의 도식화로 각 팬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팬츠 A는 엉덩이둘레에 여유가 없으며, 앞뒤허리 다아트가 없고, 팬츠 D는 뒤에만 다아트가 하나 있으며, 팬츠 E는 바지부리가 짧고 앞뒤허리 다아트 없다. 팬츠 L은 앞에 턱이 두 개, 뒤허리 다아트 2개 있으며, 팬츠 M은 앞턱 하나, 뒤허리 다아트 2개, 팬츠 N은 앞턱 2개, 뒤허리 다아트 2개 있다. 모든 팬츠는 허리둘레가 동일하며, 팬츠 E에서 바지부리가 적게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바지부리가 동일하다. 각 팬츠는 엉덩이둘레의 여유분 차이와 제도에 의한 밑위길이 차이가 발생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턴은 이태리 세폴리 패턴을 기본으로 하였다(정연희, 2006; 최영림, 2008). 세폴리 패턴은 시접을 넣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패턴 제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접을 제외한 패턴 제도법으로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엉덩이둘레에 여유가 없는 방법으로 제도한 것이 기본 팬츠 A였으며, 세폴리의 여유분 추가 시 패턴 제도 방법을 활용한 팬츠가 팬츠 D이다. 팬츠 L은 기본 팬츠를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변환하는 턱 팬츠 패턴 방법을 수칙에 의한 직접 제도법으로 정리한 것이며, 팬츠 M, N은



<그림 1> 6가지 팬츠의 도식화

팬츠 L의 제도를 변형하여 여유분이 증가하여도 허벅지둘레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즉 슬림 실루엣을 유지할 수 있는 턱 팬츠로 패턴을 변형 제안하였으며, 팬츠 E는 스키니 팬츠 패턴 제도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도를 위한 사이즈는 SizeKorea 2004의 20대 초반의 신체치수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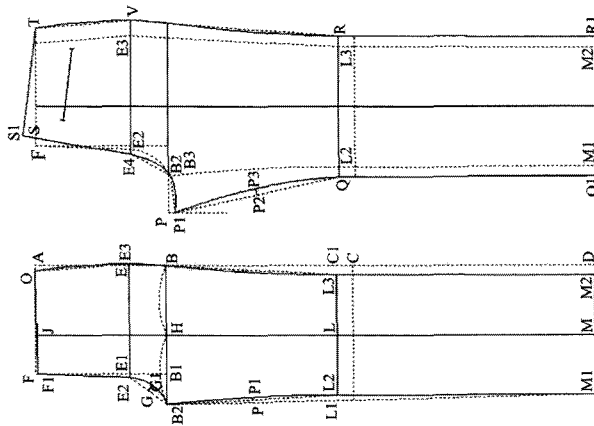
여유가 없는 팬츠의 기본 제도 및 제도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표 1>은 SizeKorea 2004의 20대에서 59세까지의 신체치수이며, 팬츠 제도를 위해 <표 1>과 같이 연령별 신체치수를 활용하여 각 부위 신체사이즈를 얻었다. 예를 들면, 엉덩이길이는 배꼽수준허리높이에서 엉덩이높이를 빼 주었으며, 밑위길이는 배꼽수준허리높이에서 살높이를, 무릎길이는 배꼽수준허리높이에서 무릎높이를 빼 주었다. 또한 바지길이는 배꼽수준허리높이로 하였으며, 이때 허리벨트의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20~24세인 경우는 패턴 제도 시 신장을 머리수직길이로 나눈 인체 분할 개념(SizeKorea 2004의 20대 초반 남성의 경우는 174/23.5로 7.4등신임: 세폴리식 팬츠 제도에서 길이는 인체의 키를 얼굴수직길이로 나누어 인체등분을 구획화 하고 다시 얼굴수직길이를 1단위로 하여 엉덩이길이, 무릎길이, 바지길이를 산출하는 방식임)을 이용하여 머리수직길이를 1단위(23.5cm)로 하였을 때,

바지길이는 머리수직길이의 4.4배, 무릎위치는 2.4배와 거의 유사하게 계산되었다. 특히 엉덩이길이는 배꼽수준허리둘레에서 엉덩이둘레까지의 길이로, 이는 신장을 10등분한 값과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는 174cm 신장을 10등분하여 17.4cm로 적용하였다. 또한 25세에서 59세까지의 치수는 각 연령에 따른 팬츠 패턴 제도 시 참조하여 사용하도록 제시하였다.

<표 2>는 SizeKorea 2004의 연령별 실측 평균 신체치수를 이용하여 20대 초반의 팬츠 제도 시 길이 분할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머리수직길이를 1단위로 하여 바지길이는 4.4배, 밑위길이는 동작 시의 기본 여유를 감안하여 1단위에 0.7cm를 더하여 주었으며, 무릎길이는 머리수직길이의 2.4배를 하였다. 이를 실제 신체사이즈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지길이의 경우는 계산으로 산출된 값이 실제 사이즈보다 0.9cm 컸으며, 엉덩이길이의 경우는 0.4cm, 밑위길이의 경우는 1.6cm가 증가되었다. 무릎길이의 경우는 계산에 의한 값이 1.3cm 적게 계산되었다. 특히 밑위길이의 경우는 활동 및 밑위둘레 확보를 위하여 여유를 주었으며, 무릎길이의 경우는 실제 신장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는 원 무릎선보다 제도 시 위로 올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본 제도에서는 약 1.3cm 정도 제 무릎위치보다 높게 잡았다.

둘레항목에서는 허리둘레로 배꼽수준허리둘레를 사



<p>◆ 앞판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패턴의 시작점(허리선 위치)</li> <li>• A - B             <math>1/7.4키 + 0.7\text{ cm}</math></li> <li>• A - C             <math>1/7.4키 \times 2.4</math></li> <li>• A - D             <math>1/7.4키 \times 4.4</math></li> <li>• C - C1            3cm 올림</li> <li>• A - E             <math>1/10키</math></li> <li>• B - B1            <math>1/2H - 3\text{cm}</math></li> <li>• F - F1            0.5 수직으로 내림</li> <li>• E1 - E2           0.7cm 나감(E2-F1 연결)</li> <li>• B1 - B2           <math>1/10H + 1\text{cm}</math> 나감</li> <li>• G - G1            1.3cm 들어감</li> <li>• H                  B2 - B의 이등분점</li> <li>• M - M1           바지부리/2-1cm</li> <li>• M - M2           바지부리/2-1cm</li> <li>• L1 - L2           1cm 들어감</li> <li>• B2 - L2           연결하여 중앙에 P점</li> <li>• P - P1            0.3cm 들어감</li> <li>• B2 - P1 - L2     자연스럽게 연결함</li> <li>• L - L3            L - L2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줌</li> <li>• F1 - O            <math>1/2W - 0.5\text{cm}</math>로 앞허리둘레 결정</li> <li>• E - E3            0.3cm 나감</li> <li>• O - E3 - B - L3  자연스럽게 연결함</li> </ul>		<p>◆ 바지 뒤판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2 - E4           1cm 나감</li> <li>• B2 - P            <math>1/6H - 0.8\text{cm}</math></li> <li>• L2 - Q &amp; M1 - Q1  2cm 나감</li> <li>• P1 - Q            앞판 L2 - B2길이-0.5cm하여 P점의 수직선에 접선</li> <li>• P2 - P3           P1 - Q의 이등분점 P2에서 1.3cm P1 - P3 - Q - Q1을 연결</li> <li>• F - S             <math>1/24H - 0.5\text{cm}</math> 들어감. E4 - S 연결</li> <li>• S - S1            2.5cm 연장함</li> <li>• B2 - B3           0.5cm 내림</li> <li>• S1 - T            S1 - S - E4 - B3 - P1를 연결함</li> <li>• E4 - V            <math>1/2W + 0.5\text{cm}</math></li> <li>                      E2 - E3를 측정함</li> <li>                      엉덩이둘레에서 E2 - E3를 뺀 길이로 나감</li> <li>• L3 - R &amp; M2 - R1  2cm 나감</li> <li>                      T - V - R - R1 연결함</li> </ul> <p>엉덩이둘레: H 허리둘레: W</p>	
--	--	--	--

<그림 2> 여유가 없는 기본 팬츠 제도 방법(팬츠 A)

용하였는데, 이는 여성복과 달리 남성복 하의의 경우는 배꼽수준허리둘레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실제 허리밴드길이(4~5cm)를 바지길이에 추가하면 실제 허리높이까지의 길이가 되도록 구성됨을 의미한다.

2. 팬츠의 형태별 패턴 제도식 변화

<표 3>은 6가지 남성 팬츠의 형태별 패턴 제도법을 정리한 것이며, <그림 3>은 6가지 팬츠 패턴 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엉덩이둘레의 앞판, 뒤판 배분을 살펴보면, 팬츠 A와 팬츠 D는 바지부리에서 앞뒤 차

가 2cm(총 4cm) 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엉덩이둘레에서도 2cm(총 4cm) 차이가 나도록 구성되었다. 팬츠 E는 앞뒤 차가 1.5cm(총 3cm)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턱 팬츠이나 턱분량이 5cm를 넘지 않는 팬츠 L, M은 앞판과 뒤판의 차이가 1.5cm(총 3cm) 나도록 구성하였으며, 팬츠 N의 경우는 앞판 턱 분량이 총 7cm로 매우 커 앞판과 뒤판의 차이가 1cm(총 2cm) 나도록 구성하였다. 즉, 엉덩이둘레의 배분을 턱이 없는 경우는 엉덩이둘레 여유분을 포함하여 앞뒤 차이가 4cm 나도록 하였으며, 턱이 있는 경우는 앞판의 허리둘레가 턱 분량으로 인해 커짐으로 앞뒤판 차이를 3cm 이하로 조정하였다. 허리둘레의 경우는 팬츠 A, D, E의

&lt;표 1&gt; SizeKorea 2004의 연령별 신체치수 및 팬츠 제도를 위한 치수 산출 방법 (단위: cm)

측정부위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9	50~59
키		173.8	172.5	171.3	170.7	168.6	166.1
배꼽수준허리높이		102.5	101.5	100.7	100.1	98.7	96.8
엉덩이높이		85.5	84.4	83.7	83.2	82.1	80.7
살높이		79.9	78.9	77.8	77.0	76.2	75.0
무릎높이		44.8	44.0	44.0	43.8	43.3	42.4
가쪽복사높이		6.9	6.9	6.9	6.9	6.8	6.7
머리수직길이		23.5	23.5	23.6	23.7	23.6	23.6
엉덩이길이(배꼽수준허리높이-엉덩이높이)		17.0	17.1	17.0	16.9	16.6	16.1
밀위길이(배꼽수준허리높이-살높이)		22.6	22.6	22.9	23.1	22.5	21.8
무릎길이(배꼽수준허리높이-무릎높이)		57.7	57.5	56.7	56.3	55.4	54.4
배꼽수준허리둘레		79.7	81.3	84.2	85.9	86.4	88.1
엉덩이둘레		94.6	94.8	94.9	95.6	94.8	94.5
넙다리둘레		56.4	56.5	56.1	56.7	55.2	54.0
무릎둘레		37.2	37.0	36.9	37.1	36.7	36.4
종아리최소둘레		22.3	22.3	22.4	22.5	22.2	22.2

&lt;표 2&gt; SizeKorea 2004 20대 초반의 신체치수를 이용한 팬츠 길이 분할 방법 (단위: cm)

길이 항목	계산식	계산에 의한 값	20~24세 사이즈	차
바지길이(배꼽수준허리높이)	23.5×4.4	103.4	102.5	+0.9
엉덩이길이(배꼽수준허리높이-엉덩이높이)	174/10	17.4	17.0	+0.4
밀위길이(배꼽수준허리높이-살높이)	23.5+0.7	24.2	22.6	+1.6
무릎길이(배꼽수준허리높이-무릎높이)	23.5×2.4	56.4	57.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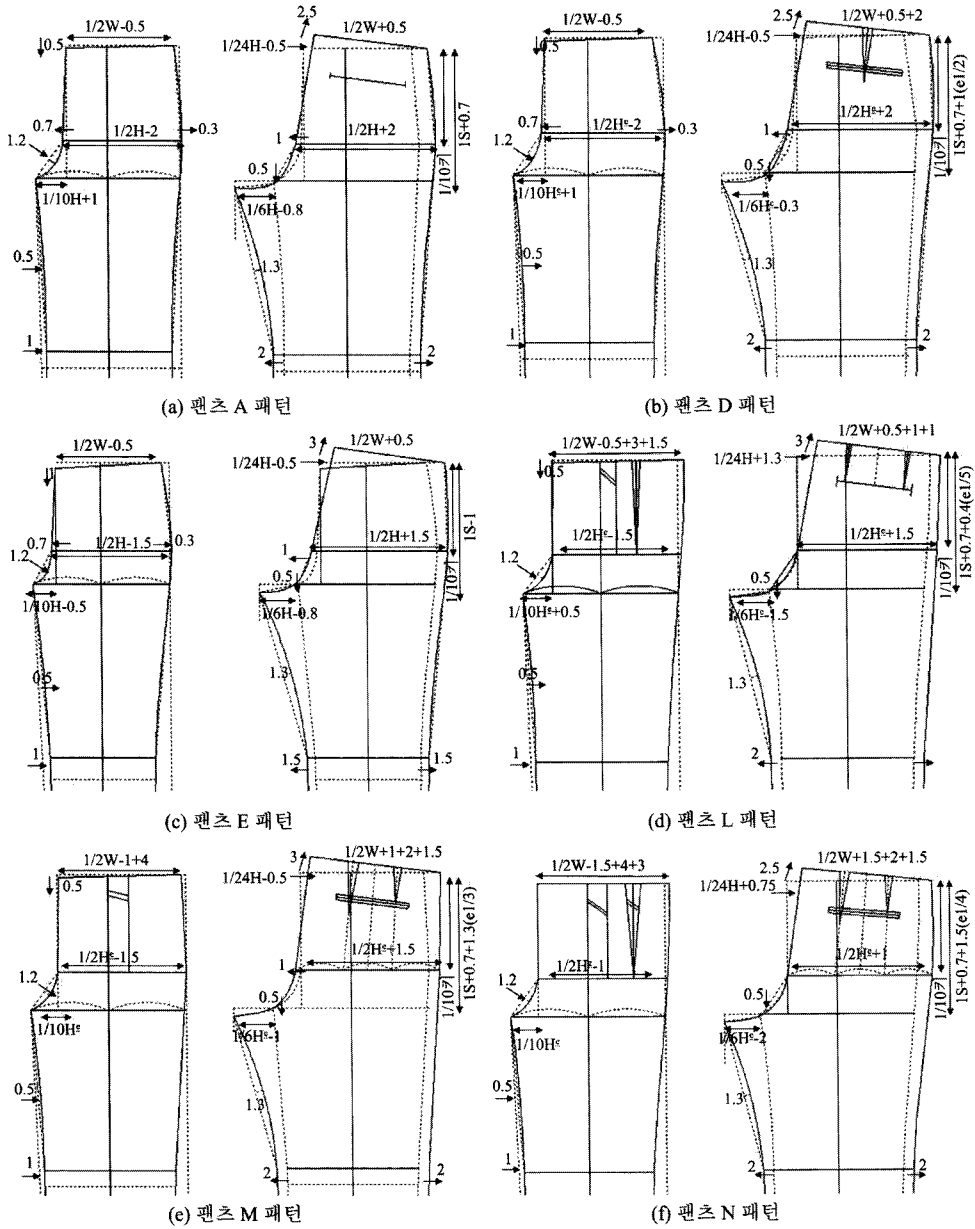
키: 174, 머리수직길이: 23.5, 한국인의 신체: 174/23.5≒7.4 (7.4등신)

경우 앞판, 뒤판의 허리 차이가 1cm, 즉 앞허리둘레는 허리둘레를 이등분하여 0.5cm 빼 두고 뒤허리둘레에서 0.5cm 크게 설정하였다. 이는 뒤엉덩이둘레가 앞 엉덩이둘레보다 4cm 크게 설정되어 허리와 엉덩이둘레의 발란스를 가능한 맞추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팬츠 M, N의 경우에는 앞판 허리둘레에 턱 분량이 들어있어 앞허리에서 1cm, 1.5cm를 빼고, 뒤허리둘레에서는 1cm, 1.5cm 크게 설정하였다.

<표 3>은 6가지 팬츠 형태별 패턴 제도법을 정리한 것으로 각각의 여유분 배분과 앞, 뒤 살폭 설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제도식은 편의상 부호로 표시하였는데 엉덩이둘레는 H로, 엉덩이둘레에 포함된 여유분은 e로, 여유분을 포함한 엉덩이둘레는 H<sup>e</sup>로, 머리수직길이는 S로 표시하였다. 먼저, 엉덩이둘레에서 여유분의 치수에 따라 팬츠를 정리하여 보면, 여유분이

0cm인 팬츠는 팬츠 A, 팬츠 E이며, 여유분이 2cm(총 4cm)인 것은 팬츠 D, L이고, 여유분이 4cm(총 8cm)인 것은 M이고, 여유분이 6cm(총 12cm)인 팬츠는 N이었다. 밀위길이의 여유분을 살펴보면, 밀위길이가 -인 것은 팬츠 E(-1cm)이고, 팬츠 A는 기본 치수로 하였으며, 기본 치수에서 0.4cm 더하여 준 팬츠 패턴은 L이고, 1cm 더하여 준 팬츠는 D였다. 밀위길이를 1.3cm 더하여 준 팬츠는 M이고, 1.5cm 준 팬츠는 N이었다.

앞살폭과 뒤살폭은 팬츠의 엉덩이둘레 및 엉덩이둘레 여유분에 따라, 팬츠의 디자인에 따라 설정하였다. 바지부리는 팬츠 E에서만 다르게 하였는데, 그 둘레는 40cm로 하였다. 그 외 팬츠 A, D, L, M, N는 50cm로 바지부리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림 3> 6가지 팬츠 패턴 제도

### 3. 6개 팬츠의 인체 착용평가

총 6개의 형태와 여유분이 다른 팬츠는 광목으로 제작하였다. 광목은 세탁하여 풀기를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팬츠 제작 시 시접은 1cm로 하였다. 팬츠의 착용평가는 20대 초반의 남성 8인이 수행하였으며, 피험

자의 신체데이터는 <표 4>와 같다.

본 실험에 참여한 남성 피험자는 신장 평균이 176.9cm(표준편차±2.23cm)였으며, 몸무게는 67.8kg(표준편차±2.71kg), 배꼽수준허리둘레는 79.8cm(표준편차±1.21cm), 엉덩이둘레는 93.3cm(표준편차±1.67cm)였다. 본 착의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SizeKorea 2004의 신체데이터

<표 3> 6가지 팬츠 형태별 패턴 제도법 정리

팬츠 종류			
제도법	팬츠 A	팬츠 D	팬츠 E
영덩이둘레(H)+여유분(e)=(H <sup>e</sup> )	48+0=48	48+2=50	48+0=48
앞영덩이둘레(E2 - E3)	1/2H-2	1/2H <sup>e</sup> -2	1/2H-1.5
뒤영덩이둘레(E4 - V)	1/2H+2	1/2H <sup>e</sup> +2	1/2H+1.5
밑위길이(A - B)	1S+0.7	1S+0.7+1(e1/2)	1S-1
앞살폭(B1 - B2)	1/10H+1	1/10H <sup>e</sup> +1	1/10H-0.5
뒤살폭(B1 - P)	(1/10H+1)+(1/6H-0.8)	(1/10H <sup>e</sup> +1)+(1/6H <sup>e</sup> -0.3)	(1/10H-0.5)+(1/6H-0.8)
바지부리	50	50	40
팬츠 종류			
제도법	팬츠 L	팬츠 M	팬츠 N
영덩이둘레(H)+여유분(e)=(H <sup>e</sup> )	48+2=50	48+4=52	48+6=54
앞영덩이둘레(E2 - E3)	1/2 H <sup>e</sup> -1.5	1/2H <sup>e</sup> -1.5	1/2H <sup>e</sup> -1
뒤영덩이둘레(E4 - V)	1/2 H <sup>e</sup> +1.5	1/2 H <sup>e</sup> +1.5	1/2H <sup>e</sup> +1
밑위길이(A - B)	1S+0.7+0.4(e1/5)	1S+0.7+1.3(e1/3)	1S+0.7+1.5(e1/4)
앞살폭(B1 - B2)	1/10 H <sup>e</sup> +0.5	1/10 H <sup>e</sup>	1/10H <sup>e</sup>
뒤살폭 (B1- P)	(1/10H <sup>e</sup> +0.5)+(1/6H <sup>e</sup> -1.5)	(1/10H <sup>e</sup> )+(1/6 H <sup>e</sup> -1)	(1/10H <sup>e</sup> )+(1/6H <sup>e</sup> -2)
바지부리	50	50	50
부호설명	영덩이둘레: H, 여유분: e, 여유분 포함 영덩이둘레: H <sup>e</sup> , 머리수직길이: S		

<표 4> 피험자 신체 사이즈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SizeKorea 2005 데이터	차 이
신 장	8	174.0	180.0	176.9	2.23	173.8(±58.3)	+3.1
몸무게	8	64.0	72.0	67.8	2.71	69.5(±10.2)	-1.7
배꼽수준허리둘레	8	78.2	81.7	79.8	1.21	79.7(±77.8)	-0.1
영덩이둘레	8	91.0	96.0	93.3	1.67	94.6(±55.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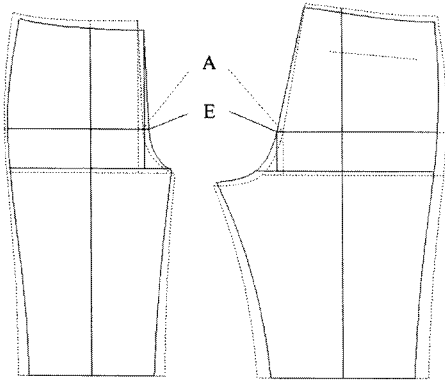
와 비교하였을 때 신장은 3.1cm나 크나 몸무게가 1.7kg 작았으며, 배꼽수준허리둘레는 0.1cm, 영덩이둘레는 0.3cm 작았다.

착의평가는 맞음새(4항목), 착용감각(5항목), 외관 평가(6항목), 여유분(4항목) 등의 주관적 평가언어를 이용하였으며, 평가는 7점 척도로 하였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피험자는 팬츠를 착용하고 실험실 전면, 후면, 측면을 보고 의복의 외관을 평가하고 착의 후 비치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6종류의 팬츠는 일상복으로 소비자가 매장에서 의복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착의평가하도록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남성 팬츠의 패턴 형태 비교

<그림 4>, <그림 6>에서 제시된 패턴은 패턴 컨트롤을 수행한 것이며, 패턴 비교 시 기준은 바지주름선과 영덩이둘레선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팬츠 패턴의 비교는 여유분이 없는 기본 팬츠 A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 패턴을 기준으로 밑위길이를 줄이거나 늘리고, 영덩이둘레 여유를 증가하였으므로 팬츠 A를 기준으로 각 패턴의 늘고 줄어듬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영덩이둘레가 동일한 팬츠 패턴, 즉 영덩이 여유가 전혀 없는 패턴 두 개를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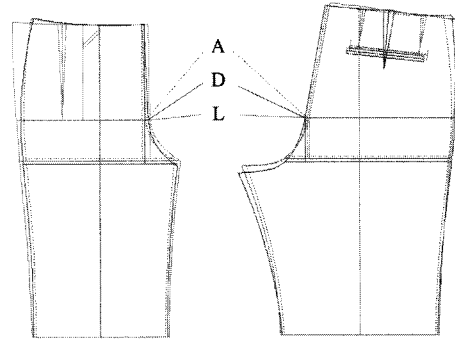


<그림 4> 팬츠 A, E의 패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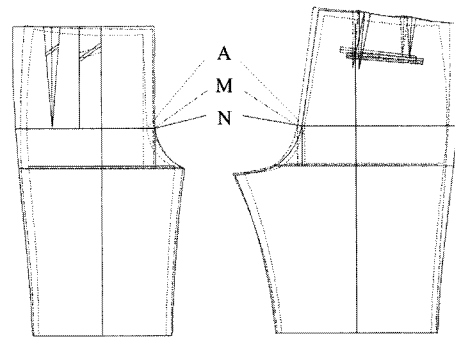
엉덩이둘레선과 바지주름선이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A, E 패턴을 겹쳐 놓고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팬츠의 엉덩이둘레 여유는 0cm로 동일하나 바지부리가 40cm과 50cm로 달라 무릎둘레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허벅지부위의 패턴 면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밀착되는(스키니 스타일인) 팬츠 E는 기본 팬츠로 설정한 팬츠 A와 비교하여, 밑위길이가 기본 패턴보다 짧게 형성되었고, 앞뒤살너비가 작게 형성되어 앞뒤살둘레와 허벅지둘레가 좁게 구성되었다.

<그림 5>는 팬츠 A, D, L을 겹쳐 패턴의 주요한 차이 발생부분을 고찰한 것으로 팬츠 A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팬츠 A(엉덩이둘레 여유 0cm)와 엉덩이둘레 여유가 2cm인 팬츠 L을 비교해 보면, 밑위길이가 길어지고, 앞뒤살폭이 커졌으며, 앞허리 턱분량(총 4.5cm)과 뒤허리 다이어트(총 2cm) 설정으로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패턴 면적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팬츠 L의 경우는 앞판의 턱분량 증가로 허리에서 엉덩이둘레부위의 패턴 면적이 주로 증가하였으며, 밑위길이는 기본 팬츠 A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팬츠 D의 경우 엉덩이둘레 여유가 2cm 증가하였으나 앞판 패턴은 팬츠 A의 앞판과 거의 유사하나, 뒤판의 경우는 뒤다아트 생성에 의해 옆솔기 라인이 달라졌다. 또한 여유분 증가에 의한 밑위길이 증가와 앞뒤살너비 증가가 발생하였다.

<그림 6>은 팬츠 A, M, N을 겹쳐 놓은 것으로 밑위길이변화를 살펴보면, 기본 팬츠 A에 비해 밑위길이가 크게 길어지는 않았으나 앞허리중심점과 뒤허리중심점이 높아져 실제 착용에 의해서는 밑위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주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



<그림 5> 팬츠 A, D, L의 패턴 비교



<그림 6> 팬츠 A, M, N의 패턴 비교

었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4cm인 팬츠 M과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6cm인 팬츠 N은 앞뒤살폭너비가 증가하였으며, 옆솔기가 외측으로 나가 전반적으로 허리둘레에서 허벅지둘레까지의 패턴 면적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 2. 6가지 팬츠의 각 부위 사이즈 고찰

<표 5>는 6가지 팬츠의 부위별 사이즈를 정리한 것으로 각 부위별 사이즈 차이는 다음과 같다. 밑위길이는 팬츠 N이 25.7cm로 가장 길었으며, 이는 백경자, 이정란(2001)의 연구에서 제안된 턱 팬츠의 밑위길이(팬츠길이 110cm인 경우 바지 안솔기가 80cm이고, 허리밴드 3cm를 제하면 밑위길이는 27cm임) 27cm보다 1.3cm이 짧게 잡혔으며, 팬츠 E는 22.5cm로 가장 짧았다. 이는 백경자, 이정란(2001)의 연구 시 피험자 연령이 20대 중반이었으며, 연구시점이 2000년이므로 200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대 초반의 평균 신장이 171.3cm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밑위길이 차는 훨씬 큰 것을 의미한다. 총 살폭은 팬츠 M



이 18.0cm로 가장 넓었으며, 팬츠 E가 13.2cm로 가장 적었다. 총 허벅지둘레를 살펴보면, 팬츠 N이 68.1cm로 가장 컸으며, 팬츠 M(67.0cm), 팬츠 L(64.7cm), 팬츠 D(64.0cm), 팬츠 A(62.3cm), 팬츠 E(58.0cm) 순이었다. 팬츠 E의 경우는 20-24세의 넓다리둘레(56.4cm)와 차가 1.6cm로 다른 팬츠에 비해 허벅지부위가 매우 밀착되게 구성되었다. 총살길이를 살펴보면, 팬츠 M이 66.0cm로 가장 길었으며, 팬츠 E가 56.7cm로 가장 짧은 총살길이를 보였다. 무릎둘레를 살펴보면, 바지부리가 동일한 팬츠인 A, D, L, M, N이 엉덩이둘레 설정 및 앞뒤살폭 차이에 의해 무릎둘레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엉덩이둘레에 여유를 추가하고 턱등을 추가하여도 무릎에서 바지부리까지의 형태 변화를 원치 않는 경우는 미리 무릎둘레를 원하는 치수로

설정하여 제도하여야 할 것이다.

<표 6>은 팬츠의 면적 및 부위별 비례를 살펴본 것으로 무릎에서부터 패턴 면적이 가장 큰 패턴은 팬츠 N, M, L, D, A, E 순이었으며, 디자인에 따라 앞뒤패턴의 면적 발란스는 다르게 형성되었다. 즉 팬츠 A의 경우 뒤패턴 면적이 앞패턴 면적보다 305.1cm<sup>2</sup> 컸으나, 팬츠 L(228.7cm<sup>2</sup>), M(276.7cm<sup>2</sup>), N(251.3cm<sup>2</sup>)의 경우는 앞의 턱 분량에 의해 앞판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뒤판은 면적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특히 엉덩이둘레에 여유분이 크고 턱 분량이 커질수록 뒤판의 면적이 앞판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엉덩이둘레를 총살폭으로 나눈 것을 살펴보면, 팬츠 E가 3.6으로 총살폭이 매우 작게 설정되었으며, 팬츠 L이 2.8로 비교적 총살폭이 크게 설정되었다.

<표 5> 6가지 팬츠의 부위별 사이즈

(단위: cm)

측정항목	팬츠 A	팬츠 D	팬츠 E	팬츠 L	팬츠 M	팬츠 N
허리둘레	41.0	40.8	41.0	41.0	40.9	41.0
여유분 포함 엉덩이둘레	48.0	50.0	48.0	50.0	52.0	54.0
누드엉덩이둘레	48.0	48.0	48.0	48.0	48.0	48.0
엉덩이둘레 여유분	0.0	2.0	0.0	2.0	4.0	6.0
밑위길이	24.2	25.2	22.5	24.3	25.5	25.7
앞살폭	5.1	5.2	3.6	5.5	5.2	5.4
뒤살폭	11.3	12.1	9.5	12.2	12.8	12.3
총살폭	16.4	17.4	13.2	17.7	18.0	17.7
앞허벅지둘레	26.3	27.1	25.1	28.4	29.0	29.7
뒤허벅지둘레	36.0	36.8	32.9	36.2	38.0	38.4
총허벅지둘레	62.3	64.0	58.0	64.7	67.0	68.1
무릎둘레	50.6	52.1	42.8	53.3	54.2	55.1
바지부리	50.0	50.0	40.0	50.0	50.0	50.0
앞중심길이	26.1	27.1	23.1	26.4	27.2	28.0
뒤중심길이	36.0	37.7	33.6	37.3	38.9	37.8
총살길이	62.1	64.8	56.7	63.7	66.1	65.8
허벅지둘레-살길이	0.2	-0.9	1.3	1.0	0.9	2.3

<표 6> 6가지 팬츠의 면적 및 부위별 비례

(단위: cm<sup>2</sup>)

측정항목	팬츠 A	팬츠 D	팬츠 E	팬츠 L	팬츠 M	팬츠 N
무릎에서부터의 앞패턴 면적	1293.4	1336.9	1204.4	1418.1	1437.6	1499.4
무릎에서부터의 뒤패턴 면적	1598.5	1661.3	1472.1	1646.8	1714.3	1750.7
뒤패턴 면적-앞패턴 면적	305.1	324.4	267.7	228.7	276.7	251.3
무릎에서부터의 패턴 면적	2891.9	2998.2	2676.4	3064.9	3151.9	3250.1
여유분 포함 엉덩이둘레/총살폭	2.9	2.9	3.6	2.8	2.9	3.1

3. 6가지 팬츠의 드레스폼 착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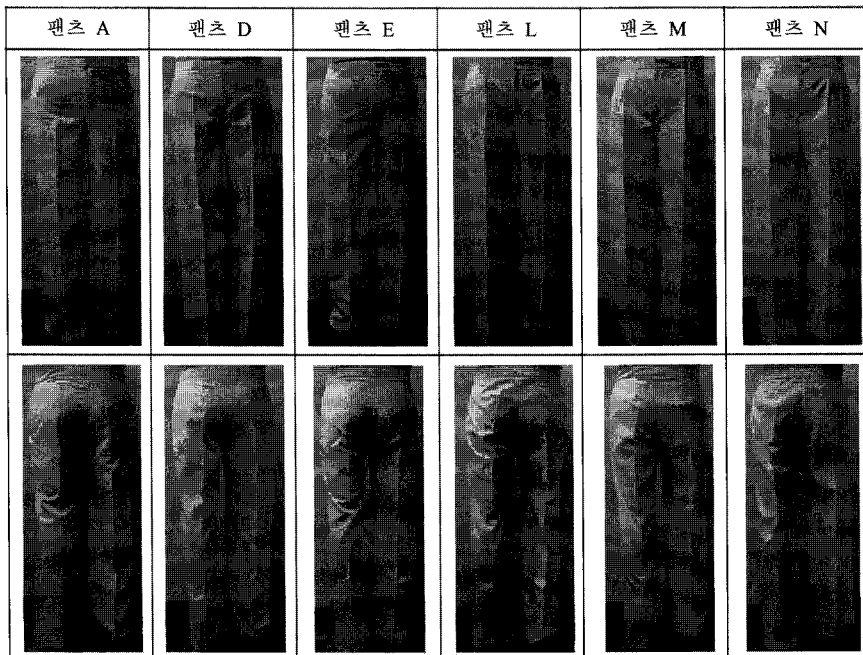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팬츠를 드레스폼(A4)에 착장하여 각 팬츠의 여유분 증가 및 형태 고찰을 수행하였다. 피험자의 체형특징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양한 패턴 제도 방법에 의해 제작된 팬츠의 외관을 쉽고 정확하게 고찰하기 위함으로, <그림 7>은 드레스폼에 착의된 6가지 팬츠 사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드레스폼은 남성 팬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용 바디를 사용하였다. <그림 7>을 살펴보면, 팬츠 E가 가장 밀착되고, 팬츠 N과 M이 엉덩이둘레부위에 비교적 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팬츠 D는 엉덩이둘레부위가 적당히 맞아 팬츠 L과 비슷한 모양을 보였다.

팬츠 E는 엉덩이둘레부위 및 살부위가 드레스폼에 밀착되었으며, 총살둘레가 가장 적어 살부위가 여유없이 밀착됨을 알 수 있었다. 팬츠 D와 L은 팬츠 A보다 2cm, 즉 총 4cm의 여유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밀위길이 및 엉덩이부위에 적당한 여유가 형성되었다.

4. 6개 팬츠의 인체 착용평가 결과

<표 7>은 20대 초반의 피험자 8인이 6가지 팬츠를

착용한 후 19개의 주관적 평가언어에 대한 설문지 결과를 보여준다. 착용쾌적감이 좋다는 평가항목에서 팬츠 L과 D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엉덩이부위가 가장 불편한 것은 모든 패턴 치수에서 여유 및 수치가 적은 팬츠 E였다. 팬츠 L과 N이 살부위가 가장 편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팬츠 N이 뒤희리가 약간 뜬다고 응답하였다. 팬츠 외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팬츠는 팬츠 L이었으며, 팬츠가 비교적 잘 어울리고, 피험자들이 주로 입는 바지형태이며 허리 여유가 적당하고 허벅지 여유도 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팬츠 D는 엉덩이 여유가 적당하고 앞뒤살부위 여유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팬츠 M과 N이 비교적 바지 여유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패턴 E, A는 팬츠가 너무 타이트하고 살부위 주름과 허리부위 주름이 다른 팬츠에 비해 심하다고 평가되었다. 주관적 평가에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팬츠 L을 팬츠 A와 <표 5>를 통해 비교해 보면, 엉덩이둘레에서 2cm(총 4cm) 차이, 총살폭에서 1.3cm, 총허벅지둘레에서 2.4cm, 총살길이에서 1.6cm, 밀위길이에서 0.1cm로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발생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팬츠 L은 턱 팬츠임에도 기본 팬츠 A와 비교하여 밀위길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 20대 초반의 남성에게는 턱 팬츠라 하



<그림 7> 드레스폼에 착의된 팬츠 사진

여도 밀위길이 및 엉덩이둘레가 큰 텍 팬츠(팬츠 M, 팬츠 N)보다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6가지 팬츠의 착용평가언어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는 <표 8>과 같다. 착용쾌적감은 팬츠 L과 팬츠 D, 팬츠 M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팬츠 A와 E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엉덩이부위가 불편하다는 착용평가언어에서는 팬츠 A와 E가 불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팬

츠 D, L, M, N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살부위가 편안하다는 평가언어에서는 팬츠 N, M, L, D가 대체로 편안하다고 하였으며, 특정 부위 압박이 심해 불편하다는 평가에서는 팬츠 E, A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엉덩이 여유 및 앞뒤살부위 여유에서는 팬츠 N, M, L, D가 대체로 여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팬츠 A, E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7> 6가지 팬츠의 주관적 착용평가항목의 평균값

주관적 평가항목	팬츠 종류	팬츠 A	팬츠 D	팬츠 E	팬츠 L	팬츠 M	팬츠 N	평 균
허리부위가 잘 맞는다		4.75	5.13	3.88	6.00	4.88	5.00	4.94
엉덩이부위가 잘 맞는다		3.75	4.88	3.38	5.63	5.00	4.88	4.58
밀위길이 적당하다		4.38	4.50	4.75	5.88	4.50	4.75	4.79
착용쾌적감이 좋다		3.75	6.00	3.13	6.00	5.38	4.50	4.79
엉덩이부위가 불편하다		4.63	1.88	5.25	1.88	1.50	1.88	2.83
뒤허리가 너무 뜬다		2.75	2.75	2.63	2.38	3.25	3.88	2.94
살부위가 편안하다		3.75	5.63	3.63	6.00	5.88	6.00	5.15
특정 부위 압박이 심해 불편하다		4.25	1.50	4.88	1.50	1.38	1.50	2.50
허리부위 주름이 심하다		3.50	2.50	3.13	2.25	2.88	2.63	2.81
바지의관이 좋다		4.00	4.75	3.63	5.38	4.00	4.50	4.38
내게 잘 어울리는 바지이다		3.25	3.88	3.75	4.75	3.50	3.13	3.71
내가 주로 입는 바지형태이다		3.13	3.88	3.38	4.00	3.00	2.88	3.38
살부위 주름이 심하다		3.75	3.00	3.63	2.38	2.50	2.63	2.98
허리여유가 적당하다		4.25	5.25	3.38	5.63	4.75	4.63	4.65
엉덩이여유가 적당하다		3.38	5.50	2.13	5.38	5.25	5.13	4.46
앞뒤살부위 여유가 적당하다		3.38	5.75	2.75	5.50	5.13	5.25	4.63
바지여유가 너무 많다		3.00	3.88	1.63	4.13	5.13	5.00	3.79
허벅지 여유가 적당하다		5.38	5.25	2.63	6.13	5.75	6.00	5.19
바지가 너무 타이트하다		4.50	1.63	4.88	1.50	1.75	1.50	2.63

<표 8> 6가지 팬츠의 주관적 착용평가항목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주관적 평가항목	팬츠 종류	팬츠 A	팬츠 D	팬츠 E	팬츠 L	팬츠 M	팬츠 N	F 값
착용쾌적감이 좋다		3.75 <sup>b</sup>	6.00 <sup>a</sup>	3.13 <sup>b</sup>	6.00 <sup>a</sup>	5.38 <sup>a</sup>	4.50 <sup>ab</sup>	5.889***
엉덩이부위가 불편하다		4.63 <sup>a</sup>	1.88 <sup>b</sup>	5.25 <sup>a</sup>	1.88 <sup>b</sup>	1.50 <sup>b</sup>	1.88 <sup>b</sup>	10.373***
살부위가 편안하다		3.75 <sup>b</sup>	5.63 <sup>a</sup>	3.63 <sup>b</sup>	6.00 <sup>a</sup>	5.88 <sup>a</sup>	6.00 <sup>a</sup>	7.011***
특정 부위 압박이 심해 불편하다		4.25 <sup>a</sup>	1.50 <sup>b</sup>	4.88 <sup>a</sup>	1.50 <sup>b</sup>	1.38 <sup>b</sup>	1.50 <sup>b</sup>	10.860***
엉덩이 여유가 적당하다		3.38 <sup>b</sup>	5.50 <sup>a</sup>	2.13 <sup>b</sup>	5.38 <sup>a</sup>	5.25 <sup>a</sup>	5.13 <sup>a</sup>	6.397***
앞뒤살부위 여유가 적당하다		3.38 <sup>b</sup>	5.75 <sup>a</sup>	2.75 <sup>b</sup>	5.50 <sup>a</sup>	5.13 <sup>a</sup>	5.25 <sup>a</sup>	6.572***
바지 여유가 너무 많다		3.00 <sup>bc</sup>	3.88 <sup>ab</sup>	1.63 <sup>c</sup>	4.13 <sup>ab</sup>	5.13 <sup>a</sup>	5.00 <sup>a</sup>	4.682**
허벅지 여유가 적당하다		5.38 <sup>a</sup>	5.25 <sup>a</sup>	2.63 <sup>b</sup>	6.13 <sup>a</sup>	5.75 <sup>a</sup>	6.00 <sup>ba</sup>	6.966***
바지가 너무 타이트하다		4.50 <sup>a</sup>	1.63 <sup>b</sup>	4.88 <sup>a</sup>	1.50 <sup>b</sup>	1.75 <sup>b</sup>	1.50 <sup>b</sup>	7.708***

\*\*p<.01, \*\*\*p<.001

소문자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 a>b>c

6개의 팬츠는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여유가 없는 패턴 2개(팬츠 A, E)와 여유가 2cm인 패턴 2개(팬츠 D, L), 여유가 4cm인 패턴 1개(팬츠 M), 여유가 6cm인 패턴이 1개(팬츠 N)였다. 착용감은 엉덩이둘레 여유가 2cm인 D, L 패턴이 다른 팬츠에 비해 우수하였으며, 엉덩이둘레에 여유가 없었던 A, E 팬츠는 엉덩이부위가 가장 불편하다고 보고하였다. 엉덩이둘레 여유가 가장 큰 팬츠 N은 살부위가 가장 편하다고 하였으나, 팬츠 여유가 너무 많다고도 하여 20대 남성에게는 6cm(총 12cm)의 팬츠 여유가 선호되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백경자, 이정란, 2001)의 결과(약 엉덩이둘레 여유가 총 19.4cm임)와 비교해 볼 때 최근의 20대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비교적 밀착된 팬츠 스타일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엉덩이둘레 여유가 12cm만 되어도 여유가 많다고 느낌을 알 수 있었다. 팬츠 외관에 있어서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팬츠 L이 가장 선호되었다.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팬츠는 L로 엉덩이둘레 여유 4cm를 가장 선호하였다. 본인이 주로 착용하는 팬츠는 L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착용하는 팬츠는 D와 팬츠 E였으며, 팬츠 E의 경우는 불편하다고 하였음에도 주로 착용하는 팬츠라 하였다. 밀위길이는 팬츠 L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다. 착용감 및 선호도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팬츠의 패턴 체도를 살펴보면, 엉덩이 둘레 여유가 4cm인 D, L의 경우 밀위둘레/엉덩이둘레비가 0.65, 0.64였으며, 총살폭/엉덩이둘레비가 0.17, 0.18, 허벅지둘레/엉덩이둘레비가 0.64, 0.65, 허벅지둘레/밀위둘레비가 0.99, 1.02이며, 밀위둘레/밀위길이버가 2.57, 2.62 순으로 각각의 바지비율이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엉덩이둘레 여유가 다르고 팬츠 형태가 다른 6가지의 팬츠를 제작하여 착의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드레스폼에 착의된 6가지 팬츠에서 엉덩이둘레 여유가 없고 살너비가 가장 작았던 팬츠 E가 가장 밀착되고, 팬츠 N과 팬츠 M이 엉덩이둘레부위에 비교적 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팬츠 D는 엉덩이둘레부위가 적당히 맞아 팬츠 L과 비슷한 모양을 보였다. 6가지 팬츠의 면적 및 부위별 비례를 살펴본 결과, 무릎에서부터 패턴 면적이 가장 큰 패턴은 N, M, L, D, A, E 순이었으며, 디자인에 따라 앞뒤패턴의 면적 발란스는

다르게 형성되었다. 즉 팬츠 A의 경우 뒤패턴 면적이 앞패턴 면적보다  $305.1\text{cm}^2$  컸으나, 팬츠 L( $228.7\text{cm}^2$ ), M( $276.7\text{cm}^2$ ), N( $251.3\text{cm}^2$ )의 경우는 앞의 턱 분량에 의해 앞판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뒤판은 면적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특히 엉덩이둘레에 여유분이 크고 턱 분량이 커 질수록 뒤판의 면적이 앞판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엉덩이둘레를 총살폭으로 나눈 것을 살펴보면 팬츠 E가 3.6으로 총살폭이 매우 작게 설정되었으며, 팬츠 L이 2.8로 비교적 총살폭이 크게 설정되었다.

2. 6가지 팬츠의 주관적 착용평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착용쾌적감은 팬츠 L과 팬츠 D가 높았으며, 팬츠 A와 E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엉덩이부위가 불편하다는 착용평가언어에서는 팬츠 A와 E가 불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팬츠 D, L, M, N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살부위가 편안하다는 평가언어에서는 팬츠 N, M, L, D가 대체로 편안하다고 하였으며, 특정 부위 압박이 심해 불편하다는 평가에서는 팬츠 E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엉덩이 여유 및 앞뒤살부위 여유에서는 팬츠 N, M, L, D가 대체로 여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팬츠 A와 E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착용감은 엉덩이둘레 여유가 2cm인 팬츠 D와 L이 다른 팬츠에 비해 우수하였으며, 엉덩이둘레에 여유가 없었던 팬츠 A와 E가 불편하다고 보고하였다. 엉덩이둘레 여유가 가장 큰 팬츠 M(총 8cm), N(총 12cm)은 20대 초반의 남성에게는 선호되지 않았으며, 팬츠 외관에 있어서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팬츠 L이 가장 선호되었다.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팬츠는 패턴 L로 엉덩이둘레 여유가 총 4cm인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주로 착용하는 팬츠로 밀위길이가 적당한 팬츠라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20대 초반의 남성을 위한 팬츠 제작 시는 다른 디자인 요소(턱의 유무)를 달리하여도 엉덩이둘레 여유가 2cm(총 4cm)있는 패턴이 제안된다.

#### 참고문헌

- 김선희, 이현민. (2005). 스포츠 전공 남자 대학생의 하반신 체형에 적합한 슬랙스 연구. *복식문화연구*, 13(3), 414-424.
- 김영희. (2008). 하지 동작에 적합한 남성복 슬랙스의 밀위길이 여유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4), 553-561.
- 남윤자, 이형숙. (2005). *남성복 패턴 메이킹*. 서울: 교학연

- 구사.
- 백경자, 이정란. (2001). 남성 정장 바지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8), 1524-1535.
- 산업자원부. (2005).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 직접측정에 의한 인체치수통계. 서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석은영, 김혜경. (1996). 남성복 바지원형의 자동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54-65.
- 이언영, 변미연, 이인성.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메트로섹슈얼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125-133.
- 이현지, 박옥연. (2003).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한국의류학회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72-72.
- 정연희. (2006). SizeKorea 2004의 한국인 인체치수를 이용한 남성용 밀착 팬츠 패턴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91-802.
- 최영림. (2008). *남성복 클래식 패턴*. 서울: 교학연구사.